

포항, 리그 5위에서 챔피언까지 등극

‘용광로 기적’ 이루다

리그 1위 성남에 1·2차전 승리

15년만에 통산 4번째 리그 정상

축구 용광로에서 온 포항의 전사들이 대망의 K-리그 정상 을 밟았다.
짧은 브라질 사령탑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형 삼바군단’ 포항 스틸러스가 리그 2연패를 노린 호화군단 성남 일화를 물리치고 K-리그 통산 네 번째 우승 별을 가슴에 새겼다.
정규리그 5위 포항은 11일 성남 분당구 야탑동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전반 43분 중 영입한 브라질 용병 슈벡크의 결승골로 정규리그 1위 성남을 1-0으로 제압했다.
지난 4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펼쳐진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3-1 완승을 거둔 포항은 1, 2차전 2전 전승에 합계 스코어 4-1로 황금빛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86년과 1988년, 1992년 리그를 제패한 포항은 이

로써 15년 만에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1995년 챔피언전에서 일화 전마에 진 포항은 12년 만에 빛을 보았고, 2004년 수원 삼성에 져 준우승에 그친 아픔을 씻고 ‘챔피언 3수’ 끝에 한을 풀었다.
6강 플레이오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경남FC, 울산 현대, 수원 등 강호들을 연파한 포항은 승점 16점이나 앞서는 성남을 잠재우며 2007년 녹색 그라운드에서 반란의 역사를 썼다.
올해부터 6강 플레이오프가 도입된 K-리그에서 5위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K-리그 3년차 파리아스 감독은 시즌 말미부터 파죽의 7연승을 일궈내며 이른바 ‘파리아스 마법’을 완성했다.
반면 통산 일곱 차례 우승 경력의 성남은 국가대표급 라인업으로 시즌 내내 1위를 달리고도 마지막 순간 우승컵을 내줘 올 시즌을 ‘무관’으로 마감했다.
포항 선수단은 상금 3억원을 받고 준우승한 성남에 1억5천만원이 돌아갔다. 포항은 11월25일(광양)과 12월2일(포항) 전남 드래곤즈와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결승 1, 2차전을 앞두고 있어 올 시즌 유일한 2관왕 꿈을 키우게 됐다.
포항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했고 FA컵까지 휩쓸면 K-리그 준우



11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K-리그 포항 스틸러스와 성남 일화의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 챔피언에 오른 포항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팀 성남이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
포항은 이날 슈벡크, 고기구 투톱에 파바레즈를 삼각편대로 놓고 박원재, 최효진이 좌우 측면을 파고들었다.
‘철인’ 김기동과 황지수가 중원을 지키고 김광석, 황재원, 조성환이 견고한 수비벽을 짰다. 수문장은 올림피코 주전 정성룡.

전반 43분 포항의 결승골이 터졌다.
고기구가 헤딩볼을 따내 야크 왼쪽으로 연결하자 슈벡크가 방어막을 편 박진섭, 김영철 사이를 현란한 드리블로 돌파했고, 시야가 열리지 않게 강렬한 오른발 슈팅을 쏘아올렸다. 슈벡크의 인스텝에 정확히 걸린 볼은 골문 왼쪽 그물을 사정없이 휘감았다. 후반엔 포항 수문장 정성룡의 신들린 선방이 빛났다.

후반 11분 성남 김두현의 예리한 슈트를 막았고, 20분 완전히 1대1로 똥된 위기에서 최성국의 슈트를 슈퍼세이브로 걸어냈다.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 피터 가젤만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포항에서 날아온 스틸러스의 전사들은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우승 드라마의 환희에 젖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역시 김연아...

환상의 트리플 루프 점프...역전 우승

세계랭킹 2위 유지...‘스텝’ 보완 필요

‘점프의 정석’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김연아는 지난 10일 오후(한국시간) 중국 하얼빈 인터내셔널 스포츠센터 링크에서 치러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점인 122.36점을 얻으면서 쇼트프로그램 점수(58.32점)를 합쳐 총점 180.68점으로 ‘14세 신예’ 캐롤리나 장(미국·156.34점)과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143.86점)를 큰 점수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경기 후 기자회견 “쇼트프로그램 때는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첫 대회여서 긴장을 많이 했었다”며 “컨디션이 워낙 좋았고 마음 편하게 연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승은 했지만 프로그램 구성요소 점수(PCS)가 56.80점이 나온 게 아쉽다. 연기의 표현력이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나머지 대회에서 표현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한층 까다로워진 체점방식에 대해서 “심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지 알 수 있었던 대회”였다며 “조그마한 요소라도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랭킹 2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11일 홈페이지(www.isu.org)를 통해

발표한 여자 싱글 랭킹에서 3천493점으로 2위를 차지한 김연아는 선두를 지킨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3천611점)를 118점 차로 바짝 추격했다.
한편 그랑프리 3차 대회를 우승한 김연아에게 스텝과 스핀 연기의 ‘등급 올리기’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김연아는 이번 시즌 더욱 엄격해진 체점기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점프 기술을 앞세워 오히려 프리스케이팅에서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여자 싱글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목에 티’는 있었다. 바로 스텝 연기였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스텝 시퀀스(스텝 연결동작)를 가장 낮은 등급인 레벨 1로 처리했다. 스핀 연기도 아쉬움이 남는다.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4개의 스핀 연기중 1개만 최고 등급인 레벨 4를 받았지만 아사다는 3개를 레벨 4로 처리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임혜경 피겨 경기이사는 “체점기준이 강화되면서 스텝과 스핀 연기에서 높은 레벨의 점수를 받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며 “김연아도 5차 대회(22~15일·모스크바)를 앞두고 스텝 연기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연아가 지난 10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3차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설기현 2경기 연속 출전 못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설기현(28·풀럼)이 정규리그 2경기 연속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설기현은 1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리버풀 안필드스타디움에서 열린 강호 리버풀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아예 출전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전 소속팀 레딩FC와 지난 4일 맞대결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90분 동안 벤치를 지킨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결장이다.
풀럼은 0-2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경문호’ 일본 오키나와 도착

가자! ‘베이징’으로 17일간 전훈 돌입

‘가자! 2008년 베이징올림픽으로’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나갈 야구 국가대표팀이 11일 전지훈련 캠프가 차려진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 올림픽 티켓 확보를 위한 17일간의 훈련에 들어갔다.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전 11시35분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 하계야 온나촌 온천 등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대표 선수들은 숙소인 리젠시 파크호텔에 여장을 풀고 이날 저녁 환영 만찬에 참가한 뒤 12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시아 4개국 챔피언의 왕중왕을 가리는 코나미컵에 참가중인 SK 와이번스 소속의 6명과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의 이병규가 12일 합류하면 드림팀의 완성이 골격이 갖춰진다.
대표팀은 온나촌 아카마구장에서 ‘3일 훈련 후 하루 휴식’ 형태로 진행하고 14일 연습 파트너인 상비군과 첫 평가전을 시작으로 6~7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소집됐던 대표팀은 상비군과 3차례 연습경기를 가졌던 대표팀은 1차전 5-10, 2차전 1-9 패배로 체면을 구겼지만 3차전에선 19안타를 폭발하며 17-5 대승을 거둬 자신감을 회복했고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부터 1억원의 투독한 격려금까지 받았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출전권을 놓쳤던 4년 전 ‘삿포로 한’을 풀고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때 대만·일본에 잇따라 패했던 ‘도하 굴욕’을 씻어낼 분위기는 형성된 것이다.
대표팀은 27일 대표 후보 30명 중 27명만 대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엔트리 24명과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문 감독은 최종 24명 조업을 ‘9(투수)-2(포수)-8(내야수)-5(외야수)’로 밝혀 후보 30명 중 6명은 탈락이 불가피하다. 대만에는 부상자를 고려해 27명이 들어가지만 상비군에서 1~2명을 추가 발탁할 예정이어서 최소 4명 이상은 오키나와 훈련 후 짐을 싸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규혁 빙속 1,000m 한국新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판형’ 이규혁(29·서울시청)이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1,000m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규혁은 11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오벌에서 치러진 남자 1,000m 디비전A(1부리그) 1차

레이스에서 1분07초40으로 결승선을 통과, 자신이 3월에 작성했던 한국기록(1분07초51)을 0.11초 앞당기면서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10일엔 단거리 ‘간판’ 이강석(22·의정부시청)이 남자 5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땀다.
이강석은 이날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

월드컵 1차 대회 4위
이강석 500m 은메달

그) 1차 레이스에서 34초20으로 결승선을 통과, 자신이 3월에 세웠던 세계기록 한국기록(34초25)을 0.05초 앞당기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캐나다 특급 ‘제레미 워더스폰(30)은 34초03으로 이강석이 3월에 세웠던 세계 최고기록을 0.22초 줄이면서 500m 신기록 달성과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